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1. 14.(월) 09:00	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상 (02-2100-2992)
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김용태 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김택주 (02-3145-7125)

**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 
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.**  
-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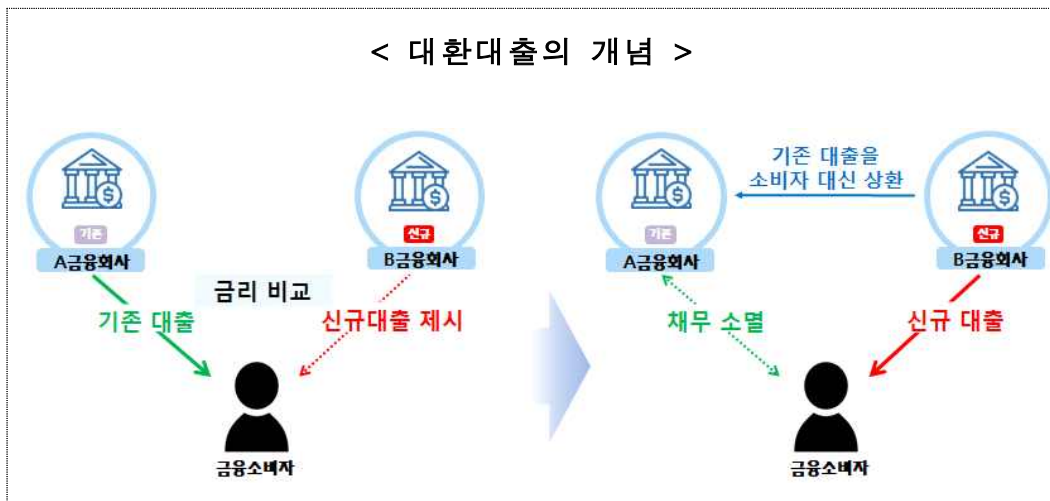
## 1 추진 배경

-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※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, 2.25%p 인상('21.8월 0.75% → '22.10월 3.0%),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.15%('22.9월 신규취급 기준)로 9년來 최고수준

- 그 일환으로,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\*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
\*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(代) 상환(換)



## 2 대환대출 시장 현황

□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, 인프라 미비로 인해 참여가 저조\*한 상황입니다.

\* 현재 대환대출 전용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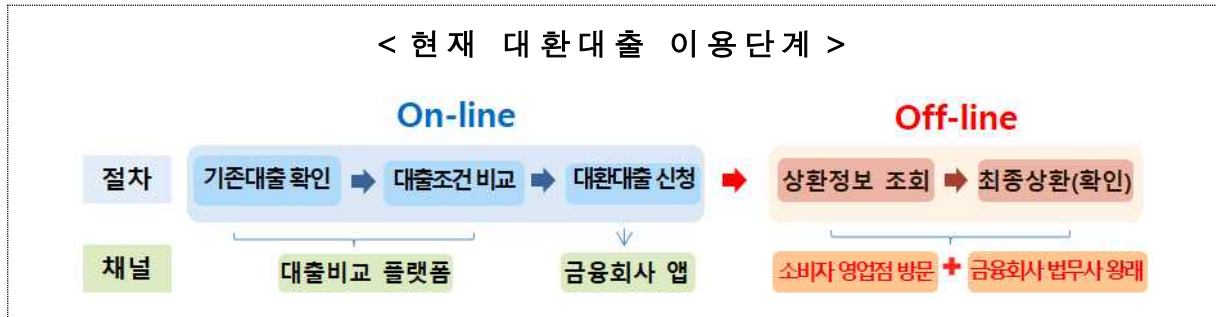
①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\*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.

\* 소비자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기존대출 확인서류 발급, 금융회사 간 법무사 왕래 등

②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\*,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\*\*가 제한되어 소비자 편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.

\* 현재 한정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만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 중

\*\* 비용(대출이동 시의 각종 수수료)과 편익(이자 경감분)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략적인 정보(원리금 등)만 제공



## 3 추진 방안

◆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.

①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

○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(상환 요청, 필요정보\* 제공, 최종 상환 확인)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

\* 상환필요금액(원리금 잔액, 수수료 등 기타비용), 상환계좌, 대출약정금액 등

○ (범위) 은행, 저축은행, 카드·캐피탈사로부터 대출\*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.

\* 금융업권별로 표준화된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추가절차 없이 이동 가능한 대출 (예: 신용대출)

※ 대부업권(금결원 망 미이용, 신용심사 방식 상이), 보험업권(관련대출 규모 미미) 제외

○ (효과)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·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입니다.



## ②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 확대

○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입니다.

1)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(대출시장)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\*(대출비교시장)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2)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(각종 수수료 등)를 대출비교 단계(플랫폼)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\*.

\* 정보제공의 범위, 방법 등은 금융권 협의 예정

○ (효과) ①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, ②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하며, ③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4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

- (소비자 보호)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.
  -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·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\*하겠습니다.
  - \*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, 주기적 재검증 등
- (리스크 관리)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겠습니다.
  -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\*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조정하겠습니다.
  - \* 소비자 편의(대환대출 이용건수, 소요시간 등), 금융회사 리스크(과도한 머니무브 등)

## 5 추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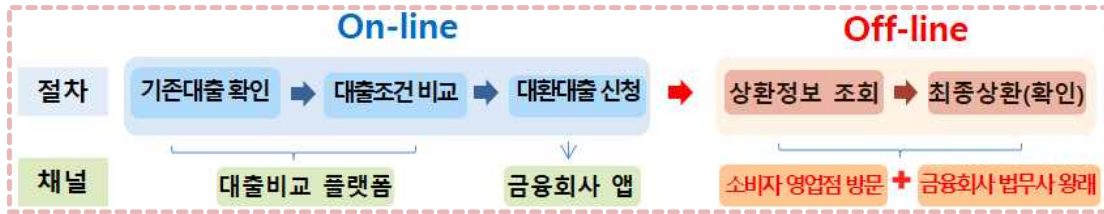
- `23.5월(잠정) 중 운영 개시\*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.
  - \* 전 업권 전산개발 실무자 회의, 시스템 개발, 통합 테스트 등 구축에 약 6개월 소요
  - `22.11월 내에 이해관계자(금융업권·핀테크·금결원 등)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.
  - 논의결과를 바탕으로, `22년 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습니다.

추진 과제	일정
① TF운영 및 운영방안 사전 협의 ※ 금융권, 핀테크 등 참여기관 간 공동협의체 구성(수수료체계, 이동시스템 운영 방안 등 협의)	'22.11월 ~
② 전산개발 등 실제 시스템 구축작업	'22년 내 착수
③ 시스템 운영 개시	'23.5월(잠정) 목표
④ 시범운영	운영 개시 후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 오화세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 박준상 (02-2100-2992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 김용태 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 김택주 (02-3145-7125)
<공동>	금융결제원	책임자	상 무 차병주 (02-531-1007)
		담당자	팀 장 김근일 (02-531-1720)
<공동>	은행연합회	책임자	상 무 김평섭 (02-3705-5050)
		담당자	부 장 김경민 (02-3705-5704)
<공동>	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	상 무 최병주 (02-397-8602)
		담당자	부 장 성용욱 (02-397-8640)
<공동>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본부장 배종균 (02-2011-0602)
		담당자	부 장 조윤서 (02-2011-0740)
<공동>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본부장 이태운 (02-2011-0602)
		담당자	부 장 백승범 (02-2011-0740)
<공동>	핀테크산업협회	책임자	사무처장 장성원 (02-587-2663)
		담당자	팀 장 허준범 (02-6949-2683)



< 현재 대환대출 이용단계 >



<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후 >

